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제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해 헛수고하거나 배부르게 못 할 것을 위해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릇된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개발과 발전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 재난을 자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유익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규모가 큰 일일수록 더욱 오래 준비하고 면밀하게 준비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53:4,5 ..... 인도자

▲ 교 독 문 ..... 126. 사순절(3)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안종일 권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135. 어저께나 오늘이나 ..... 다 함께

▲ 성경봉독 ..... 딤후 2:1-7 ..... I. 인도자  
II. 오자영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믿음의 고백 ..... 참빛 찬양대

말씀	.....	<b>비상소집</b>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b>2부특별연주</b>	.....	14. 주 우리 하나님	.....	브라스밴드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긴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혼곤한 일상에 빠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황급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꾸준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스트롱아프리카 후원 음악회	낮집회 / 강의 :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공부 / 강의 : 김재흥 목사

## 주기도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롬8:26)’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인간의 현실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꿰뚫는 탁월한 통찰입니다. 기도가 인간의 주도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기도는 그 토대가 논리정연한 언어에서 비롯한다기보다는 이 무언의 아우성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파악하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이 파악한,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탄식이 기도의 토대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인식은 가까스로 그 언저리를 더듬고 헤매며 그 탄식에 근접하고자 무한히 노력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도는 알지 못하고 드리는 무지한 기도이고, 채 언어가 되지 못한 탄식에서 출발합니다. …

주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되새길 모든 기도의 원형적 기도로 간주할 만합니다. 여기서 주요한 특징 몇 가지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함은 기도하는 자의 자기정체성 확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독특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란 말을 기도 말미에 습관적으로 붙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부터 그 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유해서 드러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면, 기도는 시작조차 힘듭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배와 찬양의 차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를 향해서만, 그의 뜻과 연관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합니다. …

둘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든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

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 뼈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기도도 많습니다. 그런 기도도 진정성과 열정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권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들이는 자기정성에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고무됩니다. 모든 기도에는 이런 자기고양의 차원과 정화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여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권하십니다. …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동기화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지에 동기화되어 병행할 뿐이지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이 듣지 못하는 역사의 드럼 비트에 발맞추어 인생의 행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셋째, 이 기도는 신학적 개념이나 상징적 언어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향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와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그 앞의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니까? 저는 이 기도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라는 기도를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들어달라'는 식의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그리고'가 아니고 '즉'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와 별개가 아니고, 앞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에서, 죄지은 자를 서로 용서하는 것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것에서,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고투하는 것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 아닌 어디가 신앙의 전장이겠습니까?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라는 인식을 늘 갖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도를 개인으로, 공동체로 드리는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연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 친환경 복숭아, 사과나무 분양 신청 받습니다

- 복숭아나무 분양 - 7월부터 3회 택배 발송
- 사과나무 분양 - 9월부터 5회 택배 발송
- 문의는 **청파교회생협**으로

유기농, 음성 햇사레 복숭아나무 분양을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수확하는 복숭아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전국에 몇 가구 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숭아가 매년 판매가 쉽지 않아 미리 “복숭아나무 분양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매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지난 15여 년간 진행했던 “껍질째 먹는 사과나무 분양”과 같은 취지입니다. 생산자는 판매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도시 조합원은 건강한 복숭아를 드실 수 있는, 농촌과 도시가 서로를 살리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복숭아나무와 사과나무 분양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교회 지하 생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 현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강은주 고희은 곽새롬 권미정 권 순 김선희 김성수 이희숙 김성아 김성우  
 박유경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일재 김정수 정자현 김종문 지명주  
 김준호 곽해자 김중현 성귀옥 김지은 김지현 김현주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문금석 박미연 박영희 박옥순 박인혁 고숙이 손연우 송병찬 송인선 신능수  
 신현일 엄은경 심창현 안지민 안현숙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수연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광섭 김수연 이순이 이유진<sup>a</sup>이응석 이은경  
 이주영 오재영 이주은 류건형 이지원 이치림 강상연 이행진 이호원 임고은  
 임 영 정경례 정연경 정영례 정윤성 서효진 정재기 정현숙 최미자 최은미  
 최형균 강경화 한선희 한지원 허정호 현 진 황현성 이오복

### 감사현금

김반야 김영호 김와니 권윤경 김일재 김종락 박영신 김태정 김혜진 남윤경  
 박재영 이현정 오은영 유수진 은종인 이고임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은주 전병호 이치림 강상연 이한림 김명희 이현주 전근우 정용구 이삼남  
 조준범 정한샘 채일석 최광표 최혜정 무명4

### 녹색꿈현금

고희도 권미숙 김용진 박효선 이미정

##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2청년부	13:30	청년회실			

